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한달... 혼란·불편 없이 순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전국 최초 ‘노선별 현금 없는 버스 순차’ 도입률이 30%로, 혼란과 불편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현재 7월까지 목표 102개 노선 1000대 중 36개 노선 300대의 현금함을 철거했다. 전체 노선 현금 또는 계좌이체는 0.5%로 지난해 1.9%, 올해 1월 1.6%, 3월 1.1%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르신·금융저신용 승객 등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에도 현금과 계좌이체가 크게 줄어 운전원 업무 부담이 줄고 안전운행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다.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와 소통협력,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 배려, 광주G-패스 연계 현장 집중홍보 등 꼼꼼한 준비가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까지 1000대 목표... 도심, 재래시장·노인타운 등 순차 도입 현금이용률 0.5%로 시행 전의 절반 수준... 운전원 안전성 향상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해 문제점 파악·신속 대응에 만전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나 운전원의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 개선 중이다.

광주시는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 온라인 의견조사, 광주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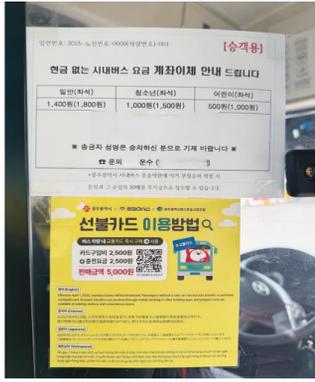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T1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노인타운 등을 후순위로 하는 노선별 순차 도입과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판매 등 현금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계좌이체의 경우 무임승차 방지와 요금

입금 확인을 위해 탑승자 인적사항 기재 후 버스업체 계좌번호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카드사와 협력하여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고 전용 폴스터 회선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운전원의 안전운행으로 현금 대체방법 안내와 카드판매는 반드시 정차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상세 안내문 배부 중심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운전원들에게 수시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카드이용률과 계좌이체 회수율 추이, 시민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좌이체 승객 인적사항 확보 간소화와 선불교통카드 판매 지속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G-패스 연계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였다”며 “시내버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 남구, 사직동 향교 주변 ‘골목길 주차난’ 숨통

지난달 통샘 인근에 공영 주차장 확장·오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사직동 광주향교 주변의 주택가 주차난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 공영 주차장 건립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향교 인근에 위치한 통샘 공영 주차장이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미줄처럼 엮인 비좁은 골목길에 주택과 원룸이 따닥따닥 밀집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매일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구는 지난해 1월부터 골목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사업비 1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기존에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조성한 통샘 공영 주차장의

주변 부지와 건물을 매입, 주차면 추가 확보에 나섰다. 기존의 통샘 공영 주차장과 새롭게 만든 주차장의 합산 주차면은 총 35면으로, 광주향교 주변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통샘 공영 주차장 인근에 있는 개인 소유 공한지에 추가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이곳 거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말께 구청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곳 공영 주차장의 차량 수용량은 13대이며, 주차장 건립 공사는 5월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일 기자

전남남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업을 위해 초대형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금·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 다음 날 11시까지 1박 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항해하는 전국 최초 섬 크루즈 여행이다.

첫째 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백야도, 개도, 제도 등 다도해 섬 경관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맛

전남 섬여행, 전국 최초 초대형 크루즈로 즐기세요

23일부터 6월1일까지 금·토 출발 1박2일... 도민 20% 할인

는 노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별밤 감상, 불꽃놀이, 선상포차, 디너뷔페, 오션뷰 객실 등 각종 크루즈 서비스를 한다.

둘째 날 항일암 앞바다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 다도해의 일출을 감상한 뒤 전남의 아름다운 섬인 나로도, 금당도, 거문도, 백도 등을 경유한다. 구체적인 운항 일정은 기상 상황, 항로 사정 등을 반영해 탄력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크루즈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은 섬 크루즈 투어를 즐기며, 선상에서는 불꽃놀이, 각종 공연과 별밤 보기를 비롯해 오션뷰 객실, 디너뷔페 등 여행과 리조트가 결합한 국내 유일의 섬 크루즈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선은 2만 2천여명 팬스타드림호다. 총 115개 객실을

비롯해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스탠다드룸부터 로얄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객실이 있으며, 디너뷔페와 조식을 무료 제공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연안크루즈 여행이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내년에는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게 크루즈 체험을 확대하고, 크루즈선을 해상호텔로 이용해 색다른 숙박시설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청렴 동구 실현’, 청렴 추진단 본격 가동

‘부패 경험 제로’ 목표, 3대 전략 바탕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추진단의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구는 최근 ‘2025년 청렴동구 추진단 회의’를 갖고 올해 청렴도 평가 전략과 실천 계획을 공유했다. 청렴동구 추진단은 임택 구청장을 단장으로 부구청장, 국·소장, 부서장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2등급을 획득했으나,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 그쳤다. 특히 외부 제감도에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부패 경험 제로(0)’를

목표로 설정하고, ‘반부패 추진 기반 고도화’, ‘신뢰받는 청렴 문화 조성’, ‘선제적 부패 예방 강화’라는 3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전 부서가 청렴 시책을 발굴·추진해 2025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계약·보조금·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 할 방침이며 부서별 청렴 지침이 운영, 청렴 구민감사관 활동 강화, 청렴 익명 신고방 구축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소극행정과 불친절을 청렴과 무관하게 인식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전 직원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청렴 가치를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서구, 거북목 교정 등 직원 ‘쉽 클래스’ 인기

점심시간 활용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처음 선보이는 ‘거북목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는 반복적인 행정업무와 민원응대로 신체 피로와 자세 불균형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쉽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직문화 개선 연구모임 ‘퐁온워크(Fun-on-Work)’의 제안을 반영했다.

‘쉽 클래스’는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5월 : 체형 교정 그룹PT(사무직, 거북이들 모여라) ▲6월 : 명상 클래스(비움의 미학) ▲7월 : 오일

파스텔 클래스(꽃을 담은 시간) 등 총 3개 강좌가 마련됐다. 각 과정은 4주간 총 4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현대인 질환인 ‘거북목 증후군’ 개선을 위한 그룹PT는 모집 정원 12명에 72명이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기록,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강의는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며, 목과 어깨 라인을 바로잡는 스트레칭, 자세 교정 운동 등 실질적인 체형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6월 명상 클래스와 7월 오일파스텔 클래스 역시 심리안정과 창의적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전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동물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대훈 (싸피스) 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평화문제 쟁점과 대안’,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의 ‘방글라데시 평화운동, 과거와 현재’ 등의 공개 제안·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은 17일까지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열린다.

주제회의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경제적, 지구촌 반폭력 문화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박도일 기자

전쟁과 억압의 한복판에서도 인권을 지키려는 도시들의 용기와 연대를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 세션은 미안마 군부 쿠데타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 활동 중인 도시 관계자와 항쟁도시 인권운동가들이 직접 참여 폭력에 저항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배우 차인표의 ‘우리가 언제나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북토크 콘서트, 인권 영화 ‘혼자’ 상영회, 자연식물식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포럼 기간 중 열리는 5·18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해 광주시민의 민주·인권 정신을 몸소 느끼고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